

흥해배씨 종가 금역당(琴易堂)의 건축과 조선후기의 구조 변화

-건축이념 및 실용성과 관련하여-

Construction of Geum'yeok-dang, the Heung'hae Bae Clan House, and its Structural Change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On the Architectural Ideology and Issue of Practicali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Geum'yeok-dang house in Andong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1558. The original floor plan of the upper base featured a 90-degree tilted '日' shape, and had inner court(內庭) on each side of 'Jungdang(中堂, center hall)' building that was placed on the south-north axis. When designing the building, the Neo-Confucian client of Geum'yeok-dang applied his understanding of how *Ga'rye*(『家禮』) defined the structure of ritual space. Consequently, 'Daecheong(大廳)', the place where guests were greeted and ancestral rites and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male were held, was built in a protruding fashion. 'Jungdang'[otherwise known as 'Jeongchim(正寢)'], where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females were held, the master of the house faced death, and memorials for close ancestors were held, wa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residence on the south-north axis. The Geum'yeok-dang today was greatly renovated in the early and mid 18th century, due to the spread of 'Ondol' heating system. As the Ondol heating system became popular, the pre-existing drawbacks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house stood out clearly. As a result, the house was renovated into today's structure consisting of '口' shape 'Anchae' and 'Daecheongchae' in separate building.

주제어 : 금역당구가도(琴易堂舊家圖), 가례, 중당(中堂), 청사(廳事), 온돌

Keywords : Geum'yeok-dang Guga-do, Ga'rye, Jungdang, Cheongsa, Ondol

1. 서론

조선의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이치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본성에 부합하는 행위를 '예(禮)'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예(禮)'의 해석과 실천을 중시했다. 특히, 남송의 주희(1130~1200)가 편찬했다고 전하는 『가례』를 전범으로 여기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 결과 주택의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당의 건축이나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 등을 성리학과 결부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변화를 발생시킨 요인을 '성리학'으로 단순화시

키거나 '사당', '제사', '남녀분리'와 같은 특정 요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¹⁾ 『가례』가 의례의 실천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사당의 건축, 안채와 사

1)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리학의 영향을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분화되었음을 밝히는 성과를 올렸지만(김종현·주남철,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2호, 1996), 이와 같은 변화에 성리학의 어떠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주희의 『가례』 및 조선시대의 예서(禮書)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분석한 연구가 주목되나(홍승재,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건축적 도면의 해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권, 2호, 1992; 이정미·이재현, 『영남지역 전통상류주거건축의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학파의 예학사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 1호, 2003), 조선시대 예서에 설정된 의례공간에 대한 사료 비판 및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랑채의 분리 등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주거생활의 실용성과도 결합된 것이었다. 현존하는 조선 시기 상류주택의 사당은 『가례』에 설정된 것보다 구조가 간략하며, 뒤에 보겠지만 조선전기의 성리학자들이 『가례』와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한 주택은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된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과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가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주택들이 조선전기에 건축되었다. 이들 주택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양반 주택과 구조가 크게 달랐다. 또한, 조선후기에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기존의 주택도 철거되거나 변형되어 지금은 본래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²⁾ 따라서 이들 주택은 『가례』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가 특정한 이유로 변형되거나 소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안동의 흥해배씨 종가인 금역당의 구가와 현재의 금역당을 분석하여 『가례』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주택의 구조를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구조로 변형된 이유를 추론해 보겠다.

2. 금역당 구가와 현 금역당의 구조

2-1. 「금역당구가도」의 주택 구조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에 있는 금역당은 임연재 배삼익(1534~1588)을 불천위로 제사하는 흥해배씨 종가이다. 본래 예안면 도목리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3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³⁾ 종가의 구전에 따르면 금역당은 배삼익이 부친 배천석을 따라 도목촌으로 ‘복거(卜居)’한 1558년⁴⁾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금역당은 안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별채인 대청채가 있다.<그림 4>

그런데 금역당 종가에는 「금역당구가도(琴瑟堂舊家圖)」가 전한다. 구가도는 1812년 간기가 있는 『상례비요(喪禮備要)』의 건(乾) 권 후면의 빈 종이에 그려져 있다. 가도의 획선을 보면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이 아니

라 기존의 가도를 옮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금역당에는 현 중손의 9대조 배집(1710~1755)이 종가를 대폭 개축했다는 구전이 있다. 따라서 칸의 구획과 용도, 창호의 위치, 쪽마루까지 표시되어 있는 구가도는 배집이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기 전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금역당구가도」의 평면은 현재의 금역당은 물론, 다른 주택들과도 크게 다르다. 구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 건물의 위치와 방향이다. 경북지역에 보편적인 ‘口’자 집은 상단에 동서축으로 몸채를 배치하고, 하단에 남북축의 좌·우 익랑과 이들 익랑의 양단을 잇는 동서축의 행랑을 배치하여 완성된다. 그러나 금역당 구가의 상단은 중심 건물을 남북축으로 놓고 중심 건물의 남단과 북단에 낭무⁵⁾를 연결하여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상단의 평면은 중심 건물의 좌우에 각기 내정을 갖춘, 옆으로 누운 ‘日’자형이 되었다. 현존 주택 중에서는 경주시 향단의 평면이 이와 유사하다.<그림 11>

아래의 <그림 1>은 구가도의 원본 및 이에 근거하여 칸의 구획과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건물 배치를 보면 단변 두 칸의 ‘중당(中堂)’(㉠)이 남북축으로 놓이고, 이 중당의 남단과 북단에 각기 동·서축의 단칸통 낭무가 연결되었다. 이들 낭무의 양 끝단에 다시 남북축 건물이 연결되어 옆으로 누운 ‘日’자형 평면을 이루었다. 서쪽에는 단변 두 칸의 ‘대청’(㉡) 건물이 돌출했다. 누운 ‘日’자형 평면의 하단 동쪽에는 남북축의 낭무를 동·서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이 낭무의 양 끝단을 다시 동서축의 낭무로 연결하여 별도의 ‘口’자형 평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하단 동서축의 낭무를 서쪽으로 4칸 연장하고, 이 낭무의 서단과 대청 건물 사이에 담을 쌓아 다시 별도의 내정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금역당 구가는 4개의 내정과 돌출된 대청이 있는 평면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금역당구가도」는 구가의 평면과 칸 구획을 보여줄뿐더러 각 칸에 글자를 기입하여 용도나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중당’은 내부를 구획하지 않고 바닥에 마루를 시설한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2) 본고 3장 참조

3) 금역당은 1973년 8월 31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뒤 그해 12월에 국비를 들여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평면과 입면, 건축부재 등은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다만, 각기 별동인 대청채와 안채, 사당의 상대적 위치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손 배찬일은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북쪽 사당이 현 위치보다 더 멀리 있었다고 들었다고 필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전하기 이전의 후면 사진을 보아도 안채와 대청채 배면 기둥의 상대적 위치가 지금과 달라 보인다. 따라서 각 건물간의 상대적 위치는 원형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4) 『臨淵齋集』 부록 「年譜」: “(皇明世宗嘉靖)三十七年戊午[先生二十七八歲]春 從參判公 始卜居于桃木村”

5) ‘口’자형 주택에서는 몸채를 기준으로 ‘익랑’과 ‘행랑’의 정의와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금역당 구가에서는 단변 두 칸의 남북축 중당 건물 상·하에 단칸통의 홀집이 연장되면서 공간이 형성되는 바, 이 홀집 건물은 ‘익랑’으로도, ‘행랑’으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낭무(廊廡)’는 고려시기부터 부속건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청·당·낭무(廳堂廊廡)’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익랑의 배치를 뜻하는 “익이낭무(翼以廊廡; 낭무로 결체를 달았다)”에서 보듯 낭무는 ‘익랑’이나 ‘행랑’을 포괄하는, 중심건물에 딸린 부속채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口’자형 주택인 경우에는 ‘익랑’과 ‘행랑’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금역당 구가처럼 익랑과 행랑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낭무’로 표기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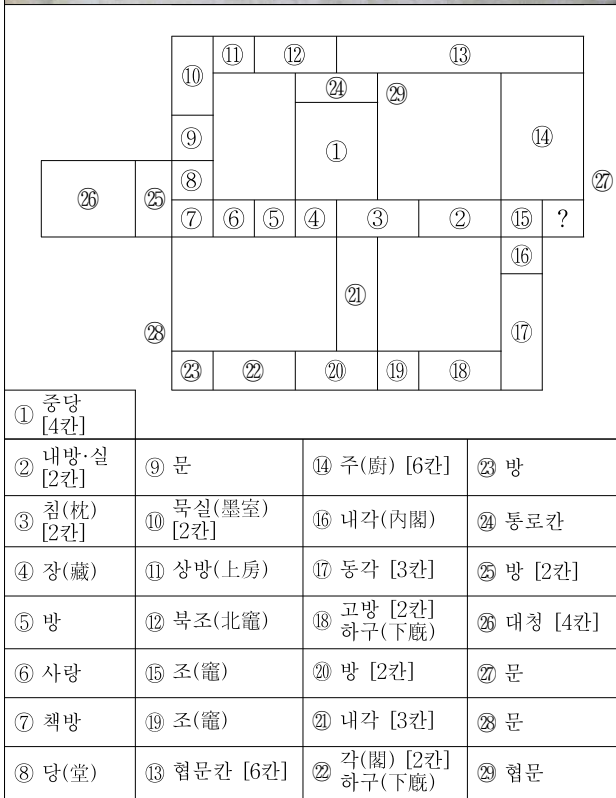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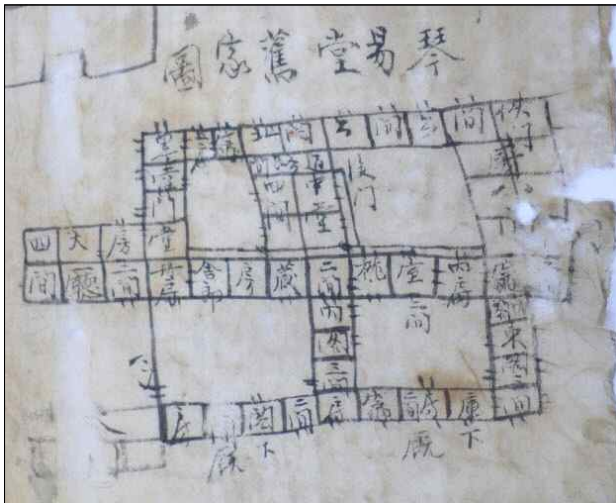


그림 1. 「금역당구가도」의 칸 구획과 칸의 용도

수 있다. 중당 남단의 동쪽 낭무는 2칸을 ‘침(枕)’(③)으로 2칸을 ‘내방·실’(②)로 표기하였다. ‘침(枕)’은 공간의 구조를 짐작하기 어려우나 ‘베개’를 뜻할뿐더러 ‘침(寢)’과 음이 같아 침실로 짐작된다. ‘내방’과 ‘실’은 내밀한 공간으로 여성이나 부부의 전용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당의 남변 동쪽 낭무는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사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중당 남변의 서쪽 낭무에는 각 1칸의 ‘장(藏)’, ‘방’, ‘사랑’, ‘책방’(④·⑤·⑥·⑦)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이 공간이 남성 가족과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알려준다.

중당의 북쪽 낭무를 보면 동쪽은 단지 ‘협문간육칸

(俠門間六間)’(⑬)이라고만 표기되어 외부로 통하는 협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낭무의 동단에 ‘주(廚, 부엌)’(⑭)가 표기된, 단면 두 칸의 건물이 연결된 것을 보면 중당의 동쪽은 전체가 여성 위주의 공간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당의 서쪽 대면에는 두 칸의 ‘묵실(墨室)’(⑩)이 있어 중당 서쪽은 남성 위주의 공간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쪽의 ‘대청’(⑮) 건물은 돌출된 평면이나 외부의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미루어 남성 전용의 사교나 의례용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당을 기준으로 동쪽은 여성 중심의 내밀한 가족 공간으로, 서쪽은 남성 가족 및 손님의 독서나 숙박 공간으로, 대청 건물은 남성의 사교나 의례 공간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당’은 서쪽 남성 공간과 동쪽 여성 공간의 접지대로서 가족·친족관계에 있는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금역당구가도」를 통하여 금역당 구가의 칸 구획, 각 칸의 용도, 성별에 따른 공간 설정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건물은 중층구조였던 것도 확인된다. 하단에 배치된 남북축의 두 낭무에는 ‘각(閣)’이 기재되었다. 동쪽 낭무에서 북쪽 첫 칸은 ‘내각(內閣)’(⑮)으로, 남쪽 세 칸은 ‘동각(東閣)’(⑰)으로 기재하였다. 서쪽 낭무도 북쪽 세 칸을 ‘내각’(⑲)으로 기재하였다. 이 ‘각(閣)’은 서쪽으로 연장된 낭무에도 기재되었다(㉗). 자의를 고려하면 ‘각(閣)’은 공간의 용도보다는 구조나 품격을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단 동서축 낭무의 서쪽 두 칸에도 ‘각’을 표기하고 그 하부에 마구간인 ‘구(廐)’를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㉘). 이는 가도의 ‘각(閣)’이 중층 건물의 상층을 뜻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낭무의 동쪽 두 칸 역시 상부가 ‘고방(庫房)’이고 하부가 ‘구(廐)’여서(⑱), 이 부분도 중층이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하단에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놓인 낭무는 모두가 중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 「금역당구가도」 원본의 작성 시점

금역당 구가는 상단의 옆으로 누운 ‘日’자형 평면에, 서쪽의 대청과 하단의 중층 낭무가 연결된 형태였다. 배삼익의 부친 배천석이 1558년에 도목촌으로 ‘복거(卜居)’한 기록이 있거니와 이와 유사한 평면을 지니고 현존하는 향단이 1543년경 건축으로 전한다는 점에서(6)

6) 향단은 이연적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에 지었다는 구전이 있으므로

금역당은 구전대로 1558년 건축일 가능성이 크다. 중층 건물의 배치는 조선전기 주택 건축의 한 특징이라는 점에서⁷⁾ 금역당 구가는 조선전기 건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역당구가도」가 어느 시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초창시의 모습이라면 이는 조선전기의 구조와 칸의 용도를 알려주는 것이 된다. 반면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기 직전의 모습이라면 이로부터 초창 이후 발생한 변화, 나아가 조선후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축된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구가도에는 ‘주(廚)’와 ‘조(竈)’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구가도가 반영하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조(竈)’는 현재 ‘부엌’이나 ‘부뚜막’ 등으로 해석된다. 구가도에 ‘조(竈)’는 모두 3곳에 표시되었다. 이들 ‘조(竈)’가 독립된 칸에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조(竈)’는 취사용 부뚜막을 뜻함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3곳의 ‘조(竈)’가 모두 ‘방(房)’과 연결한 것으로부터 이들 ‘조(竈)’는 난방을 위한 온돌 시설과 결합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구가도의 주택은 온돌 아궁이에 부뚜막을 설치하여 취사용으로 사용하던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이로부터 구가도의 주택은 초창시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기 직전인 조선후기의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 상류주택에는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온돌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⁸⁾ 그러므로 조선전기에는 온돌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평면과 입면을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후기에는 아궁이가 취사시설을 겸했으므로 아궁이와 부뚜막이 설치된 공간이 곧 부엌이 되었다. 아궁이의 위치가 부엌의 위치를 결정한 것이다.

금역당 구가가 가문의 구전대로 1558년 건축이라면 초창시에는 온돌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시설되었을 것이다. 주택의 평면과 입면도 온돌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을 것이다. 금역당 구가가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 건축되었다는 점은 구가도에 ‘주(廚)’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주(廚)’ 역시 취사 공간, 즉 ‘부엌’을 뜻하는 한자이다. 금역당 구가에서 ‘주(廚)’는 상단의 동쪽 끝에 있으며 6칸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엌의 위치나 구조가

온돌 시설과 결부하여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금역당을 처음 지었을 때에는 온돌 난방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금역당구가도」에는 ‘주(廚)’ 외에 총 3곳에 ‘조(竈)’가 표시되었고, 이 중 ‘북조(北竈)’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주(廚)’와 ‘조(竈)’가 함께 그려진 「금역당구가도」는 본래 부엌으로 설정된 ‘주(廚)’의 취사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한편, 온돌 시설과 결합된 ‘조(竈)’가 등장하여 취사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조(竈)’가 본래부터 독립된 칸에 설정되었다면 6칸이나 되는 넓은 면적에 별도로 ‘주(廚)’를 설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가도의 금역당은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로 변형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가문의 구전이 사실이라면 「금역당구가도」에 그려진 주택은 18세기 전·중반에 배집(1710~1755)이 대대적으로 개축하기 직전의 금역당이 될 것이다.

2-3. 금역당 구가의 개축과 현 금역당의 구조

(1) 구가 건물 중 현존하는 부분

현재 금역당의 평면은 「금역당구가도」와 전혀 다르다. <그림 2>에서 보듯 현재 금역당의 안채는 경북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자형이며, 안채 서쪽에 별동의 대청채가 있다.⁹⁾



그림 2. 현 금역당의 안채(상)와 대청채(하)

구전이 사실이라면 경상감사로 임명된 1543년 이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된 1545년 이전의 건축이 된다.

7)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호, 2006

8)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설비와 취사도구」, 역사민속학, 24호, 2007

9) 건물이나 공간은 현 금역당 종가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표기하였다. 금역당 종가에서는 안채의 마루 공간을 ‘안마루’로, 별동의 마루를 ‘대청’으로 부른다. 본고에 제시된 주택 사진은 필자가 2016년 6월 11일과 7월 28일에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건물 중 상당부분은 금역당 구가의 일부가 남은 것이다. 구가 건물은 안채에서 몸채와 직교하는 동·서 익랑 및 별동의 대청채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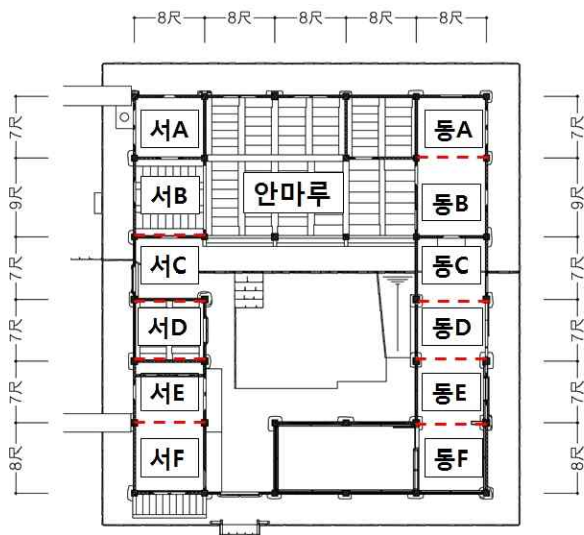


그림 3. 금역당 안채의 칸 구획

위 <그림 3>은 금역당 안채의 평면과 칸살을 표시한 것이다.¹⁰⁾ 이 중 상단의 동A·B와 서A·B 칸은 안마루와 함께 몸채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동C·D·E 칸은 동쪽 익랑 부분이고, 서C·D·E 칸은 서쪽 익랑 부분이다. 동F와 서F 칸은 각기 동·서 익랑과 남쪽 행랑이 중첩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이 두 칸의 층고가 행랑과 같아 행랑에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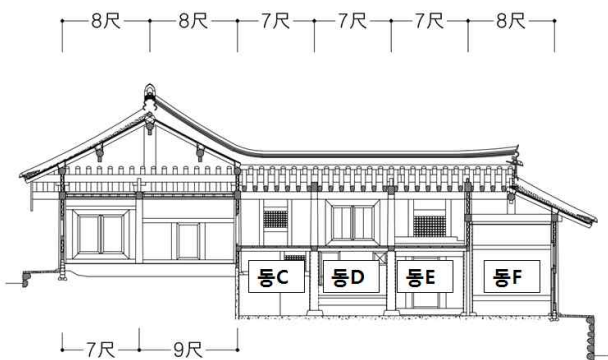


그림 4. 금역당 안채 동쪽 익랑부의 단면

그런데 평면 및 높이가 대칭인 동·서 익랑은 행랑보다 층고가 높을뿐더러 많은 부분이 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보듯 현재 동익랑은 C·D·E칸이 중층이다. 하부는 부엌이고, 상부에 다락이 있다. 또한, E

10) 본고에서 8척으로 표시한 칸은 243cm 내외로서 영조척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단위를 '자[尺]'로 표시하며 실측치가 아닌 설계 치수를 기입하였다. 불가피하게 '자'로 표시하는 것은 「금역당구가도」의 건물 중 지금은 절거져 실측할 수 없는 부분과의 관계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 F칸의 경계를 이루는 중방에는 C·D·E칸과 동일한 높이에서 다락 장선을 끼웠던 장부구멍이 있어 이 역시 중층이었음이 확인된다.<그림 5, 상>



그림 5. 금역당 안채 동F 칸의 다락 장선 흔적(상) 및 동C와 동D 사이의 칸 구획 흔적(중·하)

이처럼 동익랑에서 현재 중층이거나 과거에 중층이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금역당구가도」에서 모두 중층을 의미하는, '각(閣)'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또한, 구가도에서 동익랑은 4칸 전체가 '각(閣)'이고, 이 중 북쪽 첫 칸이 '내각(內閣)'으로, 남쪽 세 칸이 '동각(東閣)'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칸의 구획은 현 금역당에서도 확인된다. 동C 칸과 동D 칸의 경계를 이루는 다락 상부의 보와 하부의 보방향 중방에는 문 혹은 벽선을 설치했던 홈이 대칭으로 나 있어 동C 칸이 다른 칸들과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그림 5, 중·하>



그림 6. 금역당 안채 서D 칸의 다락장선 및 청판 설치 흔적

중층의 흔적은 서익랑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서익랑은 C칸만 중층이지만, <그림 6>에서 보듯 단층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서D 칸에도 다락 장선을 걸었던 장

부구멍과 청판을 끼었던 흠이 중방에 남아 있다.

이처럼 현 금역당의 동·서 익랑은 칸 구획과 중층구조 면에서 「금역당구가도」의 하단부에 배치된 남북축의 동·서 낭무와 일치한다. 특히 동익랑은 동쪽 낭무의 ‘내각·동각’ 4칸과 완전히 일치한다. 서익랑은 구가도의 ‘내각삼칸’과 비교하여 현재 두 칸만 중층구조로 확인되지만 지붕의 높이를 고려하면 역시 구가도와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 금역당의 동·서 익랑은 금역당 구가 하단의 중층 낭무가 남은 것이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 금역당의 행랑도 구가의 중층 구조가 단층으로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동쪽 익랑과 접하는 북쪽 벽의 중방에는 다락 장선을 설치했던 흠이 익랑의 다락과 같은 수평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랑의 상부 벽면에는 익랑과 동일한 양식의 고식 불박이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상> 현 금역당의 행랑도 본래 익랑과 동일한 높이였는데 개축하면서 지금처럼 단층 높이로 낮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 익랑은 평면뿐 아니라 입면까지 금역당 구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랑은 구가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익랑과 행랑 외에 별채인 대청채도 구가의 대청 건물 일부 변형된 상태로 남은 것이다. 대청채의 평면 구획은 「금역당구가도」 중의 ‘대청(大廳)’ 건물과 일치한다. 아래의 <그림 7>에서 보듯 현 대청채는 전면 네 칸 측면 두 칸의 8칸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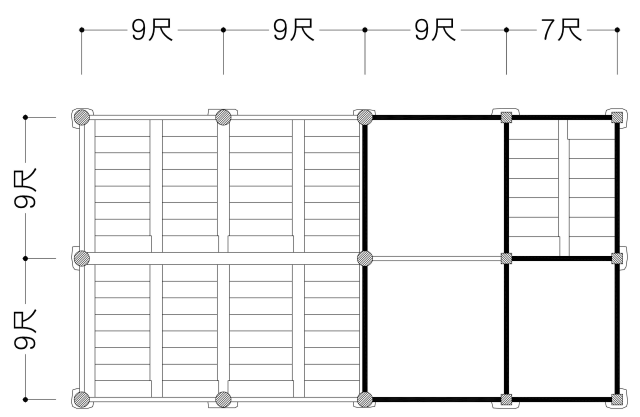


그림 7. 금역당 대청채의 칸 구획과 바닥 구조

그런데 구가도의 대청 건물은 서쪽의 네 칸이 ‘대청’이고, 대청과 접한 전후 두 칸이 ‘방’이다. 그리고 방과 연결한 낭무 부분에 각기 한 칸의 ‘당’과 ‘책방’이 전후로 배치되었다.<그림 1> 구가도의 대청 건물에 낭무부분을 포함하면 역시 8칸이어서 칸의 수와 구획이 현재의 대청채와 일치한다.

지금의 대청채가 금역당 구가의 대청 건물 6칸 및 연결한 낭무 두 칸이 남은 것이라는 점은 대청채의 칸살에서도 확인된다. 대청채의 측면 2칸은 칸살이 9자로 일정하다. 그런데 정면 네 칸은 서쪽 세 칸이 9자인데 반해 동쪽 끝 칸은 이보다 두 자가 짧은 7자이다. 이렇듯 동쪽 끝 칸만 칸살이 다른 것은 이 부분의 기능이 나 성격이 다른 부분과 달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 부분이 구가에서 대청 건물과 연결한 낭무의 남쪽 ‘책방’과 북쪽 ‘당’이었음을 시사한다.

현 대청채에 구가의 낭무가 포함되어 있음은 정면 7자 칸살의 남쪽 칸은 바닥이 온돌이고, 북쪽 칸은 마루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시기의 주택 관련 기록을 보면 ‘당’은 마루 시설을 전제하는 용어였다고 판단된다. ‘방’은 폐쇄된 주거용 공간으로, ‘당’은 개방된 공용 공간으로 인식되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기록에서 ‘방’은 으레 온돌이 시설된 공간을 뜻했으며, 바닥이 마루인 경우 ‘판방(板房; 마루방)’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당’과 ‘방’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개축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구가도에서 대청과 연결한 낭무 두 칸 중 남쪽 칸은 ‘책방’으로 북쪽 칸은 ‘당’으로 표기되었다. 이로부터 ‘책방’은 사방이 벽으로 구획된 온돌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은 개방된 마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구가도의 ‘책방’과 ‘당’에서 추론한 바닥 구조는 현 대청채의 동단에 남북으로 배치된 두 칸의 바닥 구조와 일치한다. 현재 남쪽 칸은 온돌방이고 북쪽 칸은 마루방이다.<그림 7>

따라서 현 대청채는 구가도의 6칸 대청 건물 및 ‘책방’과 ‘당’으로 구성된 낭무 두 칸이 남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 대청채 동단에 남북으로 배열된 두 칸은 금역당 구가에서 대청 건물과 연결된 낭무였다. 금역당 구가에서 대청 건물은 동서와 남북의 칸살이 모두 9자였다. 반면에 이 건물과 연결한 낭무는 동서(보방향)의 칸살이 7자였다. 이에 도리방향 칸살은 대청에 맞추어 9자가 된 반면, 보방향은 7자가 되었다. 이 낭무를 포함한 총 8칸이 남아 현재의 대청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현 금역당 대청채는 지붕구조만 구가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청’이 있는 동쪽은 현재와 같은 팔작지붕인 반면, 서쪽은 동서축의 5량 맞배지붕과 2칸 낭무를 구성하는 남북축의 3량 맞배지붕이 직교하는 구조였을 것이다. 이 서쪽 부분을 동쪽과 동일하게 팔작지붕으로 개조하고 이외의 낭무를 철거한 결과 현

재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현 금역당 대청에서 확인되는 측면 9자의 척도는 금역당 구가뿐 아니라 현 금역당 안채의 몸체 부분 평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2) 구가 건물 중 대쪽 개축된 부분

현재의 금역당 건물 중 안채의 익랑과 행랑, 별동인 대청 건물은 구가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도 상당부분 본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가와 평면이 전혀 다른 상단의 몸체에도 구가의 공간 구획이나 가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몸체의 칸 구획 및 안마루의 상부 부재에서 확인된다.



그림 8. 평주와 대공 상부의 결구(좌) 및 굴도리 접합부(우)

몸체의 안마루 부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이고 상부 구조는 오랑가이다. 안마루의 서쪽 두 칸은 통칸이고, 동쪽 한 칸은 후면을 고방으로 구획하였다.<그림 3> 따라서 안마루에는 전·후 평주를 연결하는 통칸 대보가 한 곳에 쓰였고, 중간 기둥 위에서 전후로 결구된 맞보가 세 곳에 쓰였다. 그런데 전·후 평주 위의 도리가 보편적인 구조나 법식과 전혀 맞지 않게 결구되었다.

<그림 8>에서 보듯 대청의 평주 위에는 장혀와 납도리를 결구하고 그 위에 다시 굴도리를 얹었다. 게다가 굴도리의 접합부가 기둥과 일치하지 않고 기둥과 기둥의 중간에 위치한다. 최상부의 굴도리는 서까래의 무게를 받는 도리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굴도리와 대보의 결구도 부자연스럽다. 대보 머리에는 굴도리를 얹을 수 있도록 치목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하부에 납도리가 결구되었기 때문에 굴도리는 얹었어야 할 자리보다 높이가 얹혀 있다.

이처럼 전·후 평주 위의 가구는 보편적인 법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반면에 중대공과 종대공 위의 부재는 기본적으로 법식에 부합한다. 중대공 위에는 장혀와 굴도리를 결구했으며, 종대공 위에는 뜯창방과 장혀를 결구하고 그 위에 굴도리를 얹었다. 부재의 종류나 순서는 법식에 맞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굴도리의 접합부가 대공과 대공 사이에 놓여, 굴도리 하부의 장혀가 실질적인 도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공 위의 결구는 부

재의 종류 면에서는 법식에 부합하지만, 도리 접합부의 위치는 정상이 아니다.

이로부터 안마루의 상부 가구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크게 변형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평주 위에 처음부터 도리를 이중으로 놓았을 리는 없다. 처음에는 장혀와 납도리만 결구했다가 개축하면서 굴도리를 덧얹었을 것이다. 중대공과 종대공의 상부는 부재의 종류나 결구 면에서 평주 위보다 본래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리의 접합부가 대공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개축하면서 변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마루 상부의 굴도리는 본래 지금의 안마루보다 도리칸의 칸살이 큰 건물에 사용되었던 부재를 옮겨 재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도리의 접합부가 기둥이나 대공과 어긋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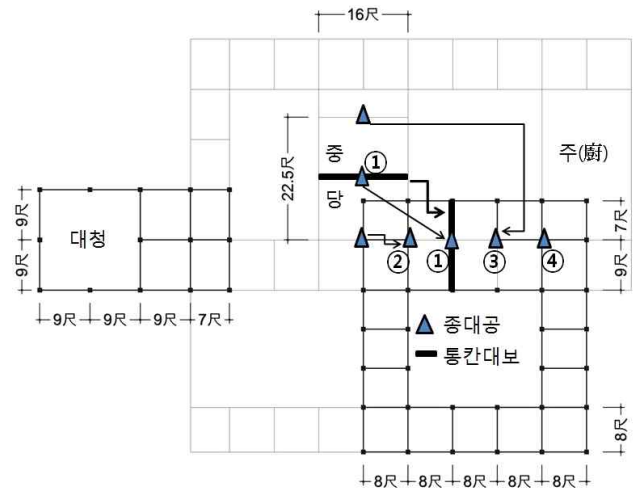


그림 9. 금역당 구가의 부재 이동과 현 금역당의 평면

안마루 상부의 결구를 「금역당구가도」와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보듯 현 몸체의 평면 구획과 가구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흐린 선으로 그린 부분이 구가의 철거된 건물이고 기둥 위치가 표시되고 진한 선으로 그린 부분이 현재의 금역당이다. 구가도에 따르면 금역당 구가에는 현재의 몸체 자리에 동서축으로 총 5칸의 단칸통 낭무가 있었다. 이 낭무의 도리칸은 지금의 익랑인 하단 낭무와 연결했으므로 칸살이 8자가 된다. 반면 보칸은 대청 건물과 접하는 낭무가 연장된 것이므로 대청의 측면 칸살과 동일하게 9자가 된다. 주택의 중심에 자리한 ‘중당(中堂)’ 건물의 칸살 역시 대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남북 방향(도리칸)이 9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동서 방향(보칸)은 현 안마루와 익랑의 8자 칸살을 고려하면 역시 8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측면 2칸의 중당에 걸린 대보의 길이는

16자가 된다. 또한 중당은 동서 2칸 남북 2칸이므로 중당에는 통칸 대보가 1곳에 설치되고, 벽면의 중간 기둥에 전후로 결구된 맞보가 2곳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보 위의 중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태의 종대공이 각각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당의 칸살과 부재는 수치나 개수, 형태의 통일성 면에서 현 금역당의 몸체 부분과 일치한다. 몸체는 전면이 5칸, 측면이 두 칸이다. 전면의 칸살은 8자로 균일하다. 이 중 동쪽과 서쪽 끝 칸은 보칸 중간의 기둥에 의거하여 남북으로 방을 구획하였다. 그런데 기둥이 보칸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에서 1자 북쪽에 있다. 그 결과 측면의 칸살이 남쪽 방(동·서 B칸)은 9자가 되고, 북쪽 방(동·서 A칸)은 7자가 되었다. 측면 두 칸의 총 길이는 16자로서 전면 칸살 8자의 배수가 되면서도 9자와 7자로 불균등하게 구획된 것이다.

이는 현 금역당 몸체에 구가 낭무의 칸 구획이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몸체의 동·서 끝 칸에서 남쪽 방(동·서 B칸)의 측면 칸살이 9자인 것은 본래 이 자리에 있었던 낭무의 보방향 칸살과 일치한다. 위에서 금역당 구가에서 이 부분에 있었던 5칸 낭무는 대청 건물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 방향(보칸)이 9자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래 구가 하단의 낭무였던 현 의랑의 동서 방향(도리칸) 칸살이 8자라는 점에서 현 몸체 부분에 있던 구가의 낭무 5칸 모두 도리칸의 칸살이 8자였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칸살로 구획된 5칸의 낭무를 현재와 같은 평면으로 확장한 결과 중간 기둥이 보칸의 중심에서 한 자 북쪽에 서게 된 것이다. 9자 간격으로 서 있는 기둥은 본래 이 자리에 있었던 5칸 낭무의 전면(남쪽)과 후면(북쪽)의 평주 자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몸체 보칸의 전체 길이 16자는 중당의 단변 길이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했듯 남북 두 칸, 동서 두 칸으로 구획된 중당의 칸살은 남북 방향이 9자이고 동서 방향이 8자여서 남북 방향이 길었다. 게다가 중당을 포함하는 건물의 남북 방향 칸수가 총 세 칸이고, 구가도에 따르면 이 중 반 칸만 통로칸이어서 중당의 남북축 길이는 동서축보다 길었다. 중당은 동서 방향이 16자였음이 분명하다. 남북 방향 3칸은 칸살이 9자로 동일했다면 중당의 남북 길이는 통로칸 4.5자를 뺀 22.5자가 된다. 따라서 중당에 설치된 통칸보의 길이는 16자이고, 한 칸 도리의 길이는 대략 11.25자 정도였다고 추측된다.<그림 9>

그러므로 현 금역당 몸체의 단변(보칸) 길이는 구가 중당의 단변(보칸) 길이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몸체 안마루의 통칸보는 본래 구가의 중당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구가의 남북축 중당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의 동서축 낭무를 현 몸체로 확장하면서 방 부분은 낭무의 기존 구획을 유지하는 한편, 안마루 부분에는 중당의 부재를 옮겨 사용한 결과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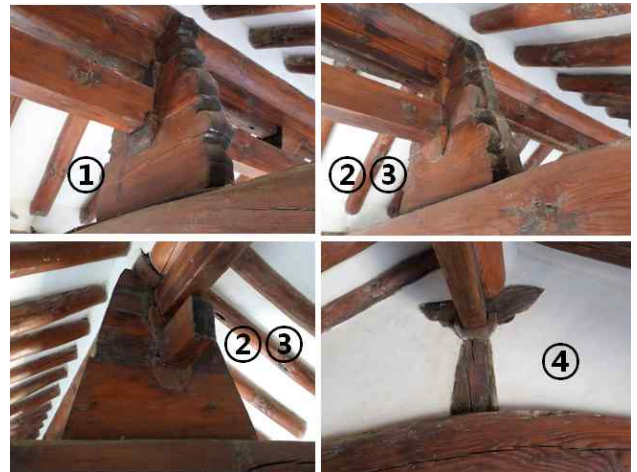


그림 10. 금역당 안마루의 종대공(숫자는 <그림 9>의 위치)

중당의 부재를 옮겨 사용한 것은 상부의 종대공에서도 확인된다. 위의 <그림 10>에서 보듯 현재 안마루 부분에는 총 4개의 종대공이 있다. 3개는 통합된 마루 부분에 있고(①·②·③), 1개는 동쪽 끝 칸의 벽 위에 있다(④). 그런데 통합된 마루 부분에 있는 종대공 3개의 구조와 형태는 동쪽 끝 칸의 종대공과 전혀 다르다. 통합된 마루 부분의 종대공은 모두 판대공으로 운형(雲形)으로 조각한 반면, 동쪽 끝 칸의 종대공은 제형(梯形) 대공과 초공(草拱)을 결합하여 형태와 구조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 통합된 마루부분의 종대공도 양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 통칸 대보 상부의 종대공은 양면을 동일한 모습으로 조각하였다(①). 반면에 통칸 대보 동·서쪽의 종대공(②·③)은 방 쪽은 조각하지 않고, 마루에 면한 쪽만 조각하였다.¹¹⁾ 그 결과 전면은 중당의 종대공과 같은 운형이나 배면은 단순한 판대공이다.

이로부터 기본적으로 양식이 일치하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들 3개의 종대공은 본래 금역당 구가의

11) 전면과 후면의 양식이 다른 종대공(②·③)은 통칸대보 상부 종대공의 동쪽에 있는 것(③)을 대표로 제시한 것이다. 서쪽의 종대공도 이와 형태가 동일하나 현재 배면이 벽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수리보수를 위해 벽을 해체한 2016년 4월에 ②번 대공과 ③번 대공의 배면 형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중당에 설치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구가의 중당에서 이들 종대공은 각기 남·북의 벽면과 중앙의 대보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남·북 벽면의 종대공은 배면이 벽속에 묻히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정면만 정교하게 조각한 반면, 대보 위의 종대공은 전체가 노출되므로 좌우를 동일하게 조각하였다. 이것을 현재의 몸체에 옮겨 사용한 결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구가의 중당은 정면이 두 칸이어서 총 3개의 종대공을 설치했는데 개축한 몸체의 안마루는 정면이 세 칸이어서 총 4개의 종대공이 필요했으므로, 중당에 사용했던 운형 판대공 3개 이외에 초공과 결합된 제형대공 1개를 옮겨 설치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몸체에 구가 중당에 설치했던 대보와 종대공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식에 맞지 않는 굴도리 역시 중당에서 옮겨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굴도리의 접합부가 기둥이나 대공과 어긋나는 것은 중당에 사용했던 도리를 몸체의 정면 칸살에 맞게 치목하지 않고 엮었기 때문이다. 측면 두 칸의 오량가인 현 대청체에 굴도리가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역시 측면 두 칸의 오량가로서 주택의 중심부에 있었던 중당의 도리 역시 굴도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구가 중당의 굴도리는 한 칸의 길이가 대략 11.25자 정도여서 현 몸체의 정면 칸살인 8자보다 길었다. 이렇듯 현 몸체의 칸살보다 긴 굴도리를 양단의 이음부만 제거하고 엮은 결과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전면과 후면 평주 위의 납도리는 본래 현 몸체 자리에 있던 구가 낭무의 중심도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가 낭무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하단부 익랑과 행랑의 도리는 모두 납도리이다. 또한,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 몸체의 남쪽 칸(동·서 B칸)의 칸살은 구가 낭무의 칸살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현 몸체 전면과 후면 평주 위의 납도리 결구는 구가 낭무의 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쪽 평주 위의 도리는 본래의 자리이고, 북쪽은 본래의 자리에서 7자 후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3. 금역당의 건축 이념과 개축 요인

3-1. 금역당 구가의 건축 이념

(1) 『가례』의 의례공간과 그 명칭

현 금역당의 구조는 개축 전의 구가와 크게 다르면서도 구가의 공간구획과 구조를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다. 금역당 구가와 현 금역당의 가장 큰 차이는 남북축

의 중당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낭무를 확장하여 동서축 몸체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구가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축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중당 건물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역당 구가처럼 남북축의 건물을 중심부에 배치한 경우는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기록이나 가도에서 금역당을 포함하여 4건이 확인될 뿐이고, 현존하는 사례로는 경주의 향단이 있다.¹²⁾ 금역당 구가와 유사한 주택은 금역당 구가가 건축된 16세기 중반에도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는 더 이상 건축되지 않고 기존의 주택도 철거되거나 변형되었다. 그런데 이들 주택의 건축주는 권벌, 이언적, 배삼익 등 영남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였다. 따라서 금역당 구가 건축의 주된 동인은 실용성보다는 주택과 관련된 성리학적 이념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역당 구가가 건축된 16세기 중반 양반층의 성리학 열기, 특히 주희의 『가례』에 대한 열정을 주목할 수 있다.

조선전기 성리학자들의 『가례』에 대한 존송과 실천은 사서와 문집 등 각종 기록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가례』를 실천하려면 이에 적합한 구조의 주택이 필요했다. 따라서 조선전기 양반 주택의 보편적인 구조가 『가례』를 실천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조였다면 『가례』의 의례공간을 이해하고 이 의례공간을 주택에 도입하고자 하는 지향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례』에는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를 집행하는 공간이 기술되어 있다.¹³⁾

아래의 <표 1>은 『가례』에서 사당 이외에 의례용 공간이 적시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청사(廳事)’, ‘외청(外廳)’, ‘정침(正寢)’, ‘중당(中堂)’이 확인된다. ‘청사’는 ‘당(堂)’과 더불어 ‘선조(先祖)’를 제사지내는 곳으로 설정되었다(①). 선조는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뜻하므로¹⁴⁾ 대종가에서는 시조가, 소종가에서는 고조가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초조(初祖; 시조)’ 제사의 보주(補註)에는 “소종 집안에서 사친(四親)[부·조·증조·

12) 이종서, 「조선전기 ‘향단형(香壇型)’ 주택의 건축과 공간 구획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2권, 7호, 2016; 이외에 안동시 임하면 천진리에 있는 의성김씨종택(청계종택)도 남북축의 중당을 배치한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평면은 동향(東向)의 ‘口’자형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초창시의 원형과 후대의 변형을 규명해야 중당 배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13)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유교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예문서원, 1999

14) 『주자가례』, 권5 제례 先祖: “繼始祖高祖之宗得祭 繼始祖之宗 則自初祖以下 繼高祖之宗 則自先祖以下”, “程子曰 初祖以下高祖以上之祖也”

고조]의 사당에서 제사할 때 남자는 주인의 오른쪽에 있고, 여자는 주부의 왼쪽에 있으면서 세대가 한 열을 만든다”고 한 뒤에 “대중가에서 시조와 선조를 제사할 때에는 ... 여자는 안에 있지 않는다. 사친의 사당[廟]에 대한 제사는 사친의 자손이 모두 세대가 가까운 친숙이어서 남녀가 한 당에 모여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시조와 선조를 제사지내면 시조와 선조 이하의 자손은 모두 세대가 멀고 소원하며 또한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안에서 열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¹⁵⁾

표 1. 『가례』의 의례 관련 공간과 관계기사

공간	의례	관 계 기 사	연번
청사 (廳事)	통례 (通禮)	큰 제사를 지내는 시절을 당하여 선조(先祖)를 청하여 당이나 청사에서 제사지낸다.	①
	혼례	주인은 문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여 읍하고 사양하며 들어간다. 신랑은 기러기를 들고 따라가 청사에 이른다.	②
외청 (外廳)	관례	관례는 외청에서 한다.	③
	혼례	주인은 빈객을 대접한다. 남자 손님은 외청에서 대접한다.	④
	상례	호상이 나가 빈객을 맞이한다. 들어가 청사에 이르면 ... 호상이 빈객을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 앞에 이르면,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 ... (빈객이) 읍하고 나가고 주인은 곡하면서 들어간다. 호상이 전송하여 청사에 이르면 차와 탕을 대접한다.	⑤
		상례	질병이 있으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한다.
정침 (正寢)	제례	제사 전날에 주인은 못 장부를 거느리고 심의를 입고 집사와 함께 정침을 청소한다(사시제).	⑦
		시제의 의례와 같다. 다만 정침에서 양 신위를 당 가운데에 합설한다[네제(禰祭)].	⑧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받들어 나와 정침에 내놓는다(기일제).	⑨
중당 (中堂)	계례	계례는 중당에서 한다.	⑩
		중자의 주부는 중당에서 한다.	⑪
	혼례	주인은 빈객을 대접한다. 여자 손님은 중당에서 대접한다.	⑫

이로부터 ‘선조’ 제사에서 ‘당(堂)’은 사당이고, ‘청사’는 이보다 규모가 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조’를 제사하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조’ 제사에는 여자가 함께 대열을 지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부터 ‘청사’의 위치는 내실에서 떨어진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혼례에서 확인되는 ‘청사’의 위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혼례에서는 신랑이 처가의 ‘청사’에 올라 장인에게 의례

를 행한 뒤 중문을 나온 신부를 맞이하여 친가로 돌아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②). 의례를 행하는 ‘청사’는 중문 밖, 대문 안에 위치한다. 중문을 경계로 내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청(外廳)’의 입지도 ‘청사’와 다르지 않다. ‘외청’은 남성의 ‘관례’를 치르는 곳이고(③), 혼례에서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다(④). 또한 상례에서 문상객이 호상(護喪)을 만나는 곳이며, 문상을 마치고 나와서 접대를 받는 곳이다. 따라서 ‘외청’은 ‘청사’와 위치와 용도가 동일한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침’은 주인이 사망하는 장소이다(⑥). 빈소도 이곳에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시제와 네(禰; 아버지)제, 기일제를 지내는 곳이라는 점에서(⑦·⑧·⑨) 남녀가 함께 고조 이하의 조상을 제사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정침’은 주택의 중심부에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당’은 여성을 위한 의례공간으로 확인된다. 여성의 성인식[계례]을 행하는 곳이고(⑩·⑪), 혼례 때에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다(⑫). 따라서 중당 역시 정침과 더불어 가옥의 깊은 곳, 즉 중문 안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2) 조선전기 성리학자의 『가례』 공간 이해와 주택 건축

『가례』에는 예의 집행 공간으로 ‘청사(廳事)’, ‘외청(外廳)’, ‘정침(正寢)’, ‘중당(中堂)’이 확인된다. 이 중 ‘청사’와 ‘외청’은 중문 밖에 위치하며 동일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침’과 ‘중당’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정침’은 주인이 사망하고 상·제례를 거행하는 공간이며, ‘중당’은 여성의 성인식과 축하연을 행하는 공간이다. ‘정침’과 ‘중당’은 주택의 안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침이 곧 중당인지 혹은 별도의 건물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조선전기 성리학자들도 고민했던 문제이다.

① 문 ‘정침’은 지금의 ‘중당’이고 ‘청사’는 지금의 ‘외청’ 입니까? 답) 지금의 ‘정침’은 동·서헌(東西軒)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지만 옛사람[중국]의 ‘정침’은 모두 앞에 있었지 동·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침’을 ‘전당(前堂)’이라고 한 것입니다.¹⁶⁾

② 옛 사람은 ‘정침’이 ‘전당(前堂)’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개 옛날의 정침은 모두 집의 정남에 있었으므로 사당이 모두 그 동쪽에 있어도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¹⁷⁾

16) 『退溪全書』, 권39 書 「答鄭道可問目」: “문) 祠堂之制 欲依文公家禮 而家禮所載圖 今觀之 似有未解 不知正寢是今之中堂 廳事是今之外廳否 답) 祠堂圖 多與本文不相應 未詳何意 但正寢與廳事 非係祠堂之制 正寢今之東西軒待賓客之處 然古人正寢 皆在前而不東西 故曰正寢 前堂也 廳事 如今大門內小廳 所謂斜廊者耳”

17) 『退溪全書』, 권27 書 「答鄭子中別紙[庚午(1546)]」: “古人謂正寢爲前堂 蓋古之正寢 皆在人家正南 故祠廟皆在其東而無所礙”

15) 『주자가례』, 권5 제례 初祖: “在小宗家之祭四親廟 則男在主人之右 女在主婦之左 世爲一列 在大宗家之祭始先祖(중략)而女不在內者 蓋祭四親廟 則四親之子孫 皆在世近屬親 男女會於一堂 自不爲嫌 若祭始先祖 則自始祖先祖以下子孫 皆在世遠屬疏 又人數衆多 故女不得在內列者”

③ 중국의 주택은 모두 정침이 있어서 신주에게 고할 때 ‘내어서 정침으로 간다[出就正寢]’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미 정침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정침이라고 칭하니 매우 편치 않습니다. 지금 ‘정당(正堂)’으로 개칭하려 하는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정구는 선세로부터 주택이 없어서 조만간 지으려고 하는데 대략 당·침의 제도를 모방하려 합니다.¹⁸⁾

위 인용문은 이황과 그의 제자가 정침과 중당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황은 ‘정침’과 ‘중당’을 동일시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침’은 동·서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것으로서 ‘전당(前堂)’과 같은 것이라고 답하였다(①). 또한, 정침을 동·서쪽이 아니라 정남쪽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②). 정침을 남북축의 건물로 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황의 제자 정구는 조선의 주택에는 정침이 없는데도 ‘정침’으로 부르는 잘못을 지적하고,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주택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례』에 설정된 의례공간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이를 주택 건축에 적용하려고 한 성리학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연보[實記]에 주희가 ‘정침’에서 사망했고, 이 정침이 ‘중당’으로도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고 있었다. 주희의 연보에는 주희가 ‘정침’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에 이어 ‘중당’으로 옮긴 당일에 사망했다는 주가 달려 있다.¹⁹⁾ 따라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연보를 통하여 ‘중당’을 곧 정침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위의 “정침은 지금의 중당입니까?”라는 질문에서도 확인된다.

이로부터 이황과 제자의 문답이 이루어진 16세기 중반에는 『가례』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에는 『가례』에 언급된 ‘정침·중당’, ‘외청·청사’ 등에 해당하는 공간이 설정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금역당 구가도 이에 해당한다. 금역당 구가는 주택의 중심부에 남북축의 ‘중당’ 건물이 놓이고, ‘대청’ 건물이 서쪽에 돌출하였다. 건물의 위치를 보면 ‘대청’은 『가례』의 ‘청사’나 ‘외청’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중당’은 ‘정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당’ 건물은 이황이 이해한 것처럼 남북축으로 놓였다.

게다가 현재 금역당에서 불천위로 제향하는 배삼익은 『주자연보(朱子年譜)』를 직접 교정하고 개간한 인물이다. 배삼익은 1566년에 이황에게 기존에 유포된 『주자연보』의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간행할 것을 건의하고 실행하였다.²⁰⁾ 그런데 금역당 구가는 배삼익이 25세였던 1558년에 건축되었다. 따라서 금역당 구가는 『가례』의 의례공간 및 『주자연보(朱子年譜)』의 ‘정침·중당’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금역당 구가는 『가례』를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건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역당 구가의 ‘대청’과 ‘중당’은 『가례』를 행하기 위한 공간이었으며, 이들 건물의 위치와 방위는 『가례』에 설정된 ‘청사·외청’ 및 ‘정침·중당’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례』를 철저히 실천하고자 한 조선전기 성리학자들의 열의가 금역당 구가 건축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남북축 중당을 배치한 다른 주택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2. 금역당 구가의 개축 원인

금역당 구가는 남북축의 중당(정침) 건물을 주택의 중앙에 배치한, 옆으로 누운 ‘日’자 형태였다. 그러나 현 금역당의 평면은 ‘口’자 형태이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단의 몸체는 본래 이 자리에 있던 5칸의 낭무를 북쪽으로 확장한 것으로, 상부 가구는 구가의 중당에 있던 부재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금역당과 유사한 구조의 조선전기 주택들도 조선후기에 개조되거나 철거된 사실이 확인된다. 향단(香壇)은 중당 부분을 온돌방으로 개조하고 방으로 구획되었던 남쪽 낭무를 터서 마루로 개조하여 공간의 구획과 용도가 원형과 크게 달라졌다. 1520년에 권벌이 처음 짓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증축한, 역시 중앙에 ‘정침’을 둔, 누운 ‘日’자형 주택은 1678년에 권벌의 6세손 권두인이 철거하였다.²¹⁾

이러한 사례를 보면 금역당 구가처럼 『가례』의 해석에 기반하여 건축된 주택들은 조선후기에 철거되거나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건축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주택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졌음을 알려준다. 『가례』의 의례공간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주거의 불편함을 감내할 만큼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다.

18) 『退溪全書』, 권39 書「答鄭道可問目」: “中國人家 皆有正寢 故告請神主 有出就正寢之文 我國之人 既無正寢 而襲稱正寢 頗爲未安 今欲改稱正堂 不知可否 但述自前世 未有家室 早晚營構 欲略倣堂寢之制”

19) 『沙溪全書』, 권25 家禮輯覽 家禮序「遺命治喪」: “實記 慶元六年三月甲子 以疾終於正寢 註 前夕癸亥精舍諸生入問疾 甲子即命移寢中堂(중략)揮婦人無近 諸生揖而退 良久恬然而逝”

20) 『臨淵齋集』, 권5 부록「年譜」: “丙寅[先生三十三歲](중략)又上書退溪先生論朱子年譜改刊事(중략)又以年譜印本往復于退溪先生(중략)戊辰[先生三十五歲]三月上書退溪先生印送朱子年譜”

21) 이종서, 「조선전기 ‘향단형(香壇形)’ 주택의 건축과 공간 구획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2권, 7호, 2016; 2장 1절 참조

금역당 구가의 불편함은 동선에서부터 확인된다. 남녀의 공간이 중당 건물의 좌우에 분리되어 배치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교류가 원활치 못하게 되었다. '부엌(廚)'이 주택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의례공간인 '대청'에 이르는 동선이 매우 길뿐더러 음식이나 정보의 전달에도 불리하다. 또 다른 불리함은 '중당'의 남북축 배치로 인한 기후 환경이다. 한국의 기후는 겨울에는 북풍이, 여름에는 남풍이 우세하며, 여름에는 남쪽으로 벌이 들지 않고, 겨울에는 남쪽 깊숙이 벌이 든다. 이를 고려하면 북쪽 기단 위에 동서축으로 몸체를 배치하는 것이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그러나 중당을 남북축으로 배치한 금역당 구가는 통풍과 채광에 매우 불리하다. 금역당 구가의 기후적 단점은 권두인의 「종가신창기」에서 잘 확인된다. 권두인은 금역당 구가와 같은 구조였던 구 종가를 철거하고 “좌우가 높고 중정이 좁아서 으스스하니 밝고 상쾌하지가 않았다”, “비워놓고 여러 해 들어가 살지 않았다”고 철거의 이유를 밝혔다.²²⁾

그러나 금역당 구가 등의 주택들이 철거 또는 개축된 이유가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불편함과 불리함은 초창 때에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축의 중당을 배치한 것에서 이들 주택은 이에 기인한 불편함과 불리함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의미 있는 주택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후 감내하기 힘든 불편으로 여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온돌의 보편화가 그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남북축의 중당(정침)을 배치한 주택 중 건축 시기가 확인되는 것은 가장 이른 권두인의 구 종가가 1520년이고 가장 늦은 금역당 구가가 1558년으로 16세기 전·중반에 분포되어 있다.²³⁾ 이때는 상류주택에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온돌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평면과 입면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역당 구가와 같은 주택들은 온돌을 시설하기에 매우 불리한 구조였다. 온돌은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가 중요하다. 아궁이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 굴뚝은 외부에 두어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 아궁이와 방바닥은 일정한 높이 차를 두어야 한다. 상단에 몸체를 두고 하단에 의랑과 행랑을 배치한 '口'자

형 주택은 초창 때에 온돌이 없었어도 후대에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며 온돌을 시설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기단 위의 평탄한 대지에 건축한 누운 '日'자형 평면은 아궁이와 굴뚝, 굴뚝을 시설하기 매우 불편할뿐더러 내정에 연기가 차기 쉽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온돌을 시설하려면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대대적으로 개축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온돌 난방의 보편화는 기존의 부엌 공간에도 변화를 초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역당구가도」에는 온돌의 보편화에 따라 기존 구조의 불편함이 부각되고, 부엌의 위치와 구조가 변한, 개축 직전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2장 1절에서 「금역당구가도」에 '주(廚)' 1곳과 '조(竈)' 3곳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구가도의 평면은 온돌 설치 이전의 취사공간과 온돌 설치 이후 새롭게 형성된 취사공간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가도를 보면 활용도가 낮은 '주(廚)' 외에도 상당한 공간이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주(廚)'와 연결한 동쪽 내정의 북쪽 공간은 단지 '협문간육칸(俠門間六間)'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서쪽 남무가 '북조(北竈)·상방·묵실' 등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동쪽 내정에 면한 공간도 본래는 용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가도를 작성한 시점에는 쓰임새 없이 방치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온돌 도입 이후에 발생한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금역당구가도」에 '조(竈)'로 표시된 칸은 모두 '방(房)'과 연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칸을 아궁이를 설치하기 위해 '조(竈)' 칸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쪽의 '조(竈)'가 두 칸인 것을 보면 '조(竈)'가 난방과 취사 기능을 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취사기능이 '조(竈)'로 옮겨감에 따라 본래의 부엌인 '주(廚)' 및 이와 관련된 공간의 용도는 점차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역당구가도」가 작성된 시점에 금역당 구가는 상당한 면적에 온돌을 시설하는 한편, 12칸 이상의 공간이 쓰임을 잃고 방치된 상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기와 열기의 배출에 불리하고, 취사기능이 분산되며, 많은 공간이 방치되자 금역당 구가는 초창시부터 지니고 있던 단점까지 부각되면서 주거에 부적절한 주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금역당 구가를 대대적으로 개축한 주된 이유가 온돌의 보편화에 있음은 현재 금역당 구가와 유사한 평면을 지니고 있는 향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에

22) 『荷塘集』 권4 記「宗家新創記」: “惟我舊宗家 創自先祖沖齋先生 迄今百六十餘年(중략)其制爲日字樣 聯兩邊爲樓 直跨行廊 正寢居中 左右高 中庭隘 以故幽邃不明爽 歷歲寢遠 日就頽圯 曠不入處者累年”

23) 이종서, 앞의 논문, 2016



그림 11. 향단의 현 평면 및 부뚜막의 위치

서 보듯 향단의 현재 평면은 금역당 구가의 ‘중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온돌방이고, 남쪽 남무가 개방된 마루이다. 이는 온돌 난방을 위해 개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향단의 서쪽 내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탈져 있다. 따라서 서쪽 내정 쪽에 아궁이를 설치하면 중심 건물, 즉 중당 부분에 온돌을 시설하기 용이하다. 이에 본래 마루였던 중당을 개조하여 서쪽 일부 공간에 아궁이와 부뚜막을 설치하고 실내를 온돌방으로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금역당 구가의 대지는 이와 같은 조건이 되지 못했기에 상단의 남무를 확장하여 몸채로 삼고 여기에 하단의 기존 ‘ㄷ’자형 남무를 결합시켜 ‘口’자형 안채로 변형하였다. 그러므로 금역당이 현재와 같은 구조로 변형된 가장 큰 요인은 온돌 난방의 보편화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이제까지 「금역당구가도」에 근거하여 구가의 평면을 분석하고 이러한 평면으로 건축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역당 구가를 현재와 같이 ‘口’자형 안채와 별동의 대청채로 개축한 사실과 방식을 확인하고 개축의 이유를 추정하였다.

금역당 구가의 상단 평면은 남북축 ‘중당’ 좌우에 각기 내정이 형성된, 옆으로 누운 ‘日’자형이었다. 내정의 남쪽 남무는 내방, 사랑 등의 주거 공간으로 구획되었으며, 북쪽에도 동일한 규모의 남무가 배치되었다. 동쪽 끝에는 ‘주(廚)’ 건물이 동쪽 내정에 면해 있었고, 서쪽 끝에는 ‘대청’ 건물이 서쪽 남무와 연결하며 돌출하였다. 구가의 하단에는 중층의 남무를 배치하였다.

금역당 구가는 『가례』를 철저히 실천하고자 한 16세기 성리학자들의 열의를 배경으로 건축되었다. 『가례』에는 관·훈·상·제의 의례공간을 갖춘 주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 양반층 주택의 구조는 이와 전

혀 달랐다. 현존하는 조선전기 주택들을 보면 남녀의 공간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口’자형 평면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금역당의 건축주는 『가례』에서 확인되는 ‘청사·외청’, ‘정침·중당’을 그가 이해한 구조대로 건축하였다. 그 결과 관례를 행하고, 문상객을 접대하며, 선조(시조)를 제사하는 ‘대청(청사·외청)’이 바깥쪽으로 돌출하였다. 계례를 행하고, 주인이 사망하며, 빈소를 차리고, 가까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중당(정침)’은 주택의 중앙에 남북축으로 놓였다. 금역당 구가가 건축될 무렵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주택들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금역당 구가는 조선후기에 대대적으로 개축되어 구가도가 없으면 이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현재 금역당의 대청채는 구가의 대청 건물이 연결한 남무 두 칸을 포함한 채별채로 남은 것이다. 또한 구가 하단의 ‘ㄷ’자형 남무가 본래의 평면과 입면을 상당부분 유지하며 안채의 익랑과 행랑으로 남아 있다. 안채 상단에 동서축으로 놓여 있는 전면 5칸 측면 2칸의 몸채는 본래 이 자리에 있던 5칸의 남무를 북쪽으로 7자 확장하여 만든 것이다. 몸채의 상부에는 중당에 사용했던 부채를 옮겨 법식에 맞지 않게 결구하였다.

금역당 구가를 개축하게 된 핵심적 이유는 온돌 난방의 보편화였다. 금역당 구가를 건축할 1558년에는 상류주택에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온돌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과 입면을 설계하였다. 이후 온돌이 보편화되자 금역당 구가는 초창시부터 지니고 있던 채광과 통풍, 동선 등의 불리함에 더하여 온돌을 설치하기 어렵고, 설치해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단점이 부각되었다. 초창시의 부엌인 ‘주(廚)’와 온돌 설치 이후의 부엌인 ‘조(竈)’가 공존하는 「금역당구가도」는 온돌이 보편화되면서도 구가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던 마지막 시기를 반영한다. 금역당의 개축을 전후하여 유사한 구조의 다른 주택들도 철거되거나 변형되었다.

금역당 구가는 사상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건축되었다가 온돌난방이라는 실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개축되었다. 따라서 온돌난방은 조선후기에 상류주택의 평면과 입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역당 구가는 16세기 성리학자의 신념이 주택 건축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의 금역당은 온돌의 보편화가 조선후기 상류주택 건축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현 금역당은 조선시기 상류주택 건축의 산 증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4) 이종서, 앞의 논문, 2016

사 사

필자에게 「금역당구가도」의 존재와 가문의 자료 및 구전을 알려준 금역당 종손 배찬일 선생과 금역당의 수리복원을 감독하면서 본고의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김전 소장님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1. 홍승재,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건축적 도면의 해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권, 2호, 1992
2. 김종현·주남철,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6
3. 이정미·이재현, 「영남지역 전통상류주거건축의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학파의 예학사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 1호, 2003
4.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호, 2006
5.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설비와 취사도구」, 역사민속학, 24호, 2007
6. 이종서, 「조선전기 ‘향단형(香壇型)’ 주택의 건축과 공간구획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2권, 7호, 2016
7.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유교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예문서원, 1999
8. 『沙溪集』, 『臨淵齋集』, 『退溪集』, 『荷塘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접수(2016. 6. 15)

수정(1차: 2016. 8. 2)

게재확정(2016. 8. 5)